



제목 Theme: 마리아의 찬양 The Praise of Mary

본문 Scriptures: 누가복음 St. Luke 1:39-56 절

39. 이 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Now at this time Mary arose and went in a hurry to the hill country, to a city of Judah

40.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and entered the house of Zacharias and greeted Elizabeth

41.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When Elizabeth heard Mary's greeting, the baby leaped in her womb; and Elizabeth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42.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And she cried out with a loud voice and said, "Blessed are you among women, and blessed is the fruit of your womb!"

43.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And how has it happened to me, that the mother of my Lord would come to me?

44.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For behold, when the sound of your greeting reached my ears, the baby leaped in my womb for joy

45.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And blessed is she who believed that there would be a fulfillment of what had been spoken to her by the Lord

46.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And Mary said: "My soul exalts the Lord

47.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And my spirit has rejoiced in God my Savior

48.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For He has had regard for the humble state of His bondslave; For behold, from this time on all generations will count me blessed

49.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For the Mighty One has done great things for me; And holy is His name



50.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AND HIS MERCY IS UP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TOWARD THOSE WHO FEAR HIM

51.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He has done mighty deeds with His arm; He has scattered those who were proud in the thoughts of their heart

52.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He has brought down rulers from their thrones, and has exalted those who were humble

53.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HE HAS FILLED THE HUNGRY WITH GOOD THINGS; And sent away the rich empty-handed

54.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He has given help to Israel His servant, In remembrance of His mercy

55.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As He spoke to our fathers, To Abraham and his descendants forever

56.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And Mary stayed with her about three months, and then returned to her home.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위하여 나이가 많아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자벳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아기를 임태하게 하셨습니다
Before Jesus was born, God caused Zechariah, a priest who was old and whose wife Elizabeth was unable to have children, to conceive a child named John, who would prepare the way for Jesus.

임태한지 6 개월이 되던 때에 사가랴를 만났던 가브리엘 천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아기를 임태하였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일러주셨습니다(31 절) Six months after visiting Zechariah, the angel Gabriel appeared to the virgin Mary and told her that she would conceive a child and name him Jesus (verse 31).

정혼은 했지만 남자를 가까이해 본적이 없는 마리아에게 매우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This was very surprising news for Mary, who was engaged but had never been close to a man before.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는 성령을 통하여 임신하게 되었는데 인간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엘리자벳에게 임신을 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However, the angel Gabriel



announced that she would conceive through the Holy Spirit, showing that nothing is impossible for our God, who can do things that are impossible for humans, just as He enabled Elizabeth, who was unable to have children, to become pregnant.

그때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라고 인정하니 천사가 떠나갔습니다(38 절) At that time, Mary accepted the angel's words and agreed to fulfill God's will, and then the angel departed (verse 38).

그후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마리아는 유대 산동네에 살고 있었던 친족 엘리자벳을 찾아갔습니다(39 절) Afterward, Mary, who lived in Nazareth of Galilee, went to visit her relative Elizabeth, who lived in the hill country of Judea (verse 39).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들어 갔을 때 엘리자벳을 문안하니(40 절), 임신한지 이미 6개월이 되었던 엘리자벳의 배속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것을 성령이 충만한 엘리자벳은 알고 있었고(41 절), 성령이 충만한 엘리자벳은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42 절)라고 축복했습니다 When Mary entered Zechariah's house and greeted Elizabeth (verse 40), Elizabeth, who was already six months pregnant, knew that the baby in her womb leaped for joy, and filled with the Holy Spirit, she blessed Mary, saying, "Blessed are you among women, and blessed is the child you will bear!" (verse 42).

세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일생 동안 성령으로 충만하게 생활했던 것처럼 그의 모친 엘리자벳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Just as John the Baptist lived his entire lif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like Jesus, we can see that his mother, Elizabeth, was also filled with the Holy Spirit.

나이가 아주 많은 마리아의 친족 엘리자벳은 어린 처녀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43 절),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 놀았 도다”(44 절) 고 하시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45 절)고 하셨습니다 Elizabeth, a very old relative of Mary, said to the young virgin Mary, "Why is this happening to me, that the mother of my Lord should come to me?" (verse 43), and "For behold, when the sound of your greeting reached my ears, the baby in my womb leaped for joy" (verse 44). She then added, "Blessed is she who has believed that the Lord would fulfill what he has promised her!" (verse 45).

친족 엘리자벳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처녀 마리아는 믿음으로 충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We can see that her relative Elizabeth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the Virgin Mary was filled with faith.



마리아는 이미 자신의 몸 속에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고 있다는 것을 엘리자벳의 증언과 자신의 의지로 확실하게 믿었고, 그 믿음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46-48 절)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We can see that Mary, through Elizabeth's testimony and her own conviction, firmly believed that she was already pregnant with the Son of God, as the angel Gabriel had told her, and she confessed this faith with the words, "My soul glorifies the Lord and my spirit rejoices in God my Savior, for he has been mindful of the humble state of his servant. From now on all generations will call me blessed" (verses 46-48).

그리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49-50 절)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And she confessed with faith, "The Mighty One has done great things for me, and holy is his name. His mercy extends to those who fear him,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verses 49-50).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는 구약의 성경을 상기하며 “그의 팔로 힘을 보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흉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 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 도다”(51-53 절) 하시며 그 종 이스라엘을 도와 궁휼히 여기시고 기억하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한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다”(54-55 절)고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 즉 메시아에 대하여 구약의 말씀(이사야 9:6-7 절)을 인용하며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Mary, pregnant with Jesus, recalled the Old Testament scriptures and said, "He has shown strength with his arm; he has scattered the proud in the thoughts of their hearts. He has brought down the mighty from their thrones and lifted up the lowly. He has filled the hungry with good things and sent the rich away empty." (verses 51-53) "He has helped his servant Israel, remembering to be merciful, as he promised to our ancestors, to Abraham and his descendants forever" (verses 54-55). This was a confession of faith, quoting from the Old Testament (Isaiah 9:6-7) about the coming Jesus, the Messiah.

마리아는 친족 엘리자벳의 집에서 약 석 달 정도 있다가 나사렛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56 절). Mary stayed at her relative Elizabeth's house for about three months before returning to her home in Nazareth (verse 56).

처녀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친족 엘리자벳이 임신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사건을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임태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When the Virgin Mary heard the message from the angel Gabriel, she already knew that her relative Elizabeth was pregnant, and she understood that this event was accomplished not by human power but by God's absolute power. Therefore, she believed the angel Gabriel's message that she would conceive Christ through the Holy Spirit.

천사 가브리엘이 정혼한 남자 요셉에게 말하기 전에 마리아는 이미 임신하여 친족 엘리자벳의 집에서 약 3개월 정도 있다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Before the angel Gabriel spoke to Joseph, Mary's engaged, she was already pregnant and had to stay at her relative Elizabeth's house for about three months.

이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지게 하신 것입니다 All these things were accomplished through the power of God and through the Holy Spirit, according to God's absolute plan.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Through today's scripture passage, our Lord has a message He wants to convey to us.

먼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39 절) First, God always keeps His promises (verse 39).

둘째,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41 절) Secondly, God fills us with the Holy Spirit in order to accomplish His will (verse 41).

셋째,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45 절) Third, God's promises and will are fulfilled only through faith (verse 45).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Dear saints of faith!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때가 되니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재림도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Just as our Lord God fulfilled His promise through numerous prophets to send a Messiah to save humanity, we must believe that the second coming of Jesus will also surely be fulfilled according to His promise.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셨던 예수님처럼 앞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May the grace, love, and blessings of our Lord, along with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be abundantly upon all believers who believe in Jesus,



NJ Korean Cho Won Lutheran Church
9 E. Homeste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뉴저지 한인 루터 교회
WWW.PALPARKCHURCH.ORG
NJKLCHURCH@GMAIL.COM

who came and will come again, and who live to fulfill the will of God the Father. I
pray this in the name of Jesus. Amen.